

[부안군민 화합 메시지]

**공존과 화합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부안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큰 아픔을 겪었으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부안 지역을 지켜온 가족이자 친지, 이웃으로서 지난 반목은 잊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세 명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높더라도 소통하고 화해하여 마음을 모으면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인드라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고마운 관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삶에서 실현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와 정신의 지역공동체로 확장될 것입니다.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예전의 화합하고 행복한 부안군, 공존과 상생의 부안군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